

1. 논문 작성법

1) 논문의 요건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술한 글이다. 논문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여타의 글과 같지만, 집필자의 비평이나 평가와 함께 주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과는 다르다. 논문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되 비평이나 평가를 수반한다는 것은 집필자의 사상이나 견해, 또는 주장의 타당성이 논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은 바로 논문 작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 양식인 것이다. 논문은 논증을 기본적인 기술 양식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은 논문의 생명이며 논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논문의 독창성은 새로운 사실이나 소재의 발견, 새로운 이론의 창안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루어진 사실이나 소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태도나 방법이 새롭고, 이미 밝혀진 이론을 적용하였다든가 도출한 결론 등이 새로운 것이라면, 이 또한 충분히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형상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남의 주장이나 견해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면 이는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논문은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확성이 결여된 논문은 오히려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논문에 담기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논문에 인용된 인명이나 참고 자료, 제시 문헌, 각주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을 기해야 한다.

셋째로 논문은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논문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연구자의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인 편견, 선입견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논문이 논의를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론적인 전개에도 논리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넷째로 논문은 검증성을 지녀야 한다. 검증성은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진위를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재현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다른 사람이 재현하는 일이 많으므로 서술이 더욱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들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논문은 반드시 공표되어야 논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공표란 작성한 논문을 출판하여 세상에 발표하는 일이다. 공표를 통해 비로소 한 사람의 학술적인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며, 그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논문의 종류

논문의 종류는 그 구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세분하고 있다.

- ① article - 신문, 논문지, 잡지 등에 게재되는 비교적 간단한 논문
- ② monograph - 전공 논문
- ③ essay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논문, treatise보다 덜 체계적임

- ④ treatise - 매우 체계적인 논문
- ⑤ dissertation - 박사 학위 논문, 논리적, 문헌적 연구의 소산
- ⑥ thesis - 석사 학위 논문, 실증적 연구의 소산

우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논문을 목적이거나 대상에 따라 연구 논문, 보고 논문 등으로, 제출하는 계기에 따라 학위 논문, 졸업 논문 등으로 나눈다. 이 외에 서평이나 소논문, 대학생들의 리포트도 넓은 의미의 논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논문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현상을 발굴해 내려는 논문,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려는 논문,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수립하려는 논문,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려는 논문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전문 학자들이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각 회지나 논문집 등에 실는 논문들도 대부분 연구 논문이다.

(2) 보고 논문

보고 논문은 해석이나 논리적인 추론에 중점을 두는 연구 논문에 비해 연구자가 직접 조사, 관찰, 측정한 사실이나 현상, 또는 실험에 관한 자료 제시에 중점을 두는 논문이다. 보고 논문에서도 해석이나 추론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원리를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중요성을 지닌다. 보고 논문도 조사나 실험이 새로운 이론이나 일반화를 얻기 위한 것일 때에는 연구 논문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사 보고, 실험 보고, 관측 보고, 답사 보고가 다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의 내용이나 연구자의 관심이 학술적인 데에 있고, 기술의 태도나 방식이 논문의 양식을 갖출 때에 논문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3)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논문이다. 학위 논문은 학위 수여 기관의 규정과 지도 교수의 감독 밑에 쓰여지며, 심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완성되므로 항상 내용과 형식에 일정한 수준이 요구된다. 학위 논문은 일반 연구 논문과는 달리 단행본과 비슷한 독립된 체재를 갖춘다.

(4) 서평

서평이란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가진 책이 세상에 처음 발간되었을 때에 그 책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쓰는 논문을 말한다. 서평은 단지 책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서평은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해야 한다.

(5) 기타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되는 짧은 형식의 논문을 소논문이라고 부르는데, 논문으로서 형식과 체제가 다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학습, 조사 연구한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리포트는 담당교수가 학생의 학습과 평가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특별히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말에 부과하는 리포트는 기말 리포트(term paper)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논문 작성의 절차

논문 작성의 절차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절차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구성과 개요를 짜서 기술하고 퇴고하는 단계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순서에 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쓰기의 절차 부분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문 작성에 필요한 내용만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물론 논문 작성의 절차와 순서는 연구 분야의 성격이나, 집필자의 경험과 역량, 주제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적절한 계획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쓰는 것이 논문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1) 주제 설정

주제는 쓰고자 하는 논문에서 다룰 근본 문제이자 중심 내용이다. 논문은 독창성과 함께 논증을 요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참신하면서도 객관적인 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논문의 성패는 주제의 선정에 달려 있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주제를 정하는 일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학문적인 연구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 ② 새롭고 독창적인 문제인가?
- ③ 실험이나 논증이 가능한 문제인가?
- ④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문제인가?
- ⑤ 범위가 좁고 제한된 문제인가?
- ⑥ 연구자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 ⑦ 다룰만한 흥미가 있고 다음 단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

(2) 자료 수집과 정리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이를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의 방법이나 과정 및 활용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연 과학 분야의 경우는 대체로 단계적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수치나 반응, 현상의 결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반면 인문 과학 분야의 경우는 문헌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는 수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통적으로 자료의 정리에는 자료 카드가 활용되어 왔는데, 이에는 '서명카드'와 '인용카드'가 있다. 서명카드는 서명 또는 논문명을 기입해서 '참고 문헌 목록' 작성 시에 활용하는 카드이며, '인용카드'는 수집된 자료에서 논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적어 두기 위한 것이다. '서명카드'에는 저자명, 서명, 논제, 항목, 권호수, 발행지, 발행처, 발행 연도 등을 적으며, '인용카드'에는 표제어, 참고 내용, 저자명, 서명이나 논제, 수록 면 수 등을 기입한다.

요즘 이러한 작업에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특히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되면 자료의 검색과 정리에 많은 이점이 있다. 자료들 중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컴퓨터에 입력해 둔다면 실제 논문을 기술할 때에 이를 쉽게 활용 수 있다.

<서명 카드>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1937), p.212.

<인용 카드>

두째 가름 이름씨(名詞)

“이름씨(名詞)란 것은 일이나 몬(物)의 이름은 나타내는 말이란 뜻이니, 곧 일과 몬(物)의 개념을 바로(直接으로) 대표하여 있는 임자씨(體言)이니라.”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1937), p.212.

수집한 자료를 논문을 쓰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정리해야 한다. 자료의 평가란 수집한 자료를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로 나누고, 각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진위, 권위나 편견의 정도, 다루는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보는 일이다. 이 때 자료의 내용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도 자료의 저자나 그것을 펴낸 출판사, 출판 시기, 목차 등을 통해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3) 구성과 개요

논문은 구성과 형식면에서 격식성이 두드러지는 글이다. 논문의 격식성은 우선 그 구성상의 요건에서 드러난다. 곧 서론, 본론, 결론의 3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다른 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필수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본론에서 논증하고, 결론에서 매듭짓는 방식의 구성을 해야 한다.

논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본론이다. 따라서 본론 부분이 여러 장으로 확대된 경우라도 그 구성 체재를 장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본론의 각 장은 논지의 전개가 병렬적 관계인가, 점층적 관계인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 다음 일정한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논문의 구성 작업을 마치면 결과를 개요로 나타낸다. 논문의 구성과 개요의 작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글쓰기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다만 논문의 구성 예만을 보이도록 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 구성 예>

- I. 서론
 - 1. 문제 제기, 연구 목적
 - 2. 연구사
 - 3.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 II. 본론
 - 1. 논의, 평가
 - 2. 결과, 해석
- V. 요약 및 결론

<자연과학 분야 논문 구성 예>

- I. 서론(문제 제기)
- II. 이론적 배경

- Ⅲ. 실험 방법
- Ⅳ. 실험 결과와 논의
- Ⅴ. 요약 및 결론

(4) 기술 및 퇴고

실제 원고를 작성하고 고치는 단계이다. 원고지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간에 논문의 기술은 형식적인 면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참고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어나 주(註)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논문의 퇴고는 일반적인 글다듬기의 요령에 따라 이루어지나 논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실하게 지켜졌나를 따져야 한다. 특히 학술 논문은 발표에 앞서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논의의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4) 논문의 일반적인 체제

근래에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논문 체제는 논문을 구성하는 요소의 범주에 따라 크게 서두(the preliminaries), 논문 본문(the text of the thesis), 참고 자료(the reference materials)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세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배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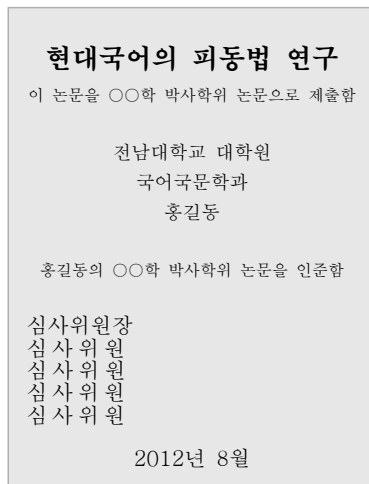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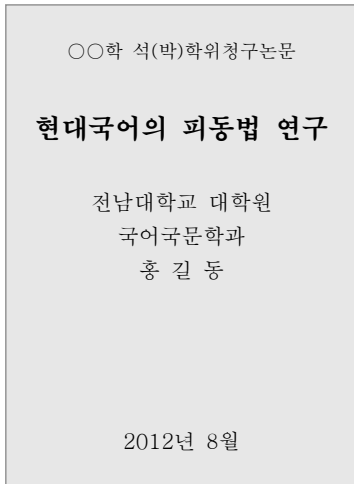
- I. 서두
 - 표제지
 - 승인란 또는 채점란
 - 서문(필요시)
 - 차례
 - 도표 목록(필요시)
 - 삽도 목록(필요시)
- II. 논문 본문
 - 서론
 - 본론
 - 결론
- III.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부록(필요시)
 - 색인(필요시)
 - 초록(필요시)

(1) 표제지와 승인란 또는 채점란

표제지(title page)는 대학이나 학회, 연구 기관마다 각기 엄격한 규격에 따라 통일된 체재를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제지에는 논문 제목, 제출처, 학위 구분, 제출자 성명, 제출 연월일 등을 기입된다. 주로 학위 논문에 필요한 승인란 또는 채점란은 대학마다 역시 일정한 양식을 쓰고 있다.

<표제지 예>

<승인란 또는 채점란 예>



(2) 서문

서두에서 들어가는 서문(preface, foreward)은 논문에서 다룬 연구 범위나 목적을 간략하게 밝히고, 논문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다. 또한 논문을 쓰는 동안 협조와 원조를 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간단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된다.

(3) 차례

차례는 논문의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본문의 골격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구분한 항목의 순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지나치게 번잡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것이 좋다. 국문 논문인 경우는 보통 장, 절, 항, 목 등으로 나누며,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장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숫자로, 절은 로마자 대문자로, 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목은 로마자 소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례 예>

제1장 서문

제2장 고려 말기의 척불 운동의 태생

1. 고려조의 불교 존숭과 배불의 기운
2. 고려 말기의 유학의 흥기와 척불 운동의 태생
 - 1) 여말의 유학의 흥기와 척불 운동
 - 2) 여말의 유학계

(4) 도표 목록, 삽도 목록

흔히 이들 목록을 생략하는 일이 많으나 도표나 삽도는 논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표나 대조표 또는 그래프나 분석도, 사진 자료나 도록 등을 모두 이 목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5) 부록

부록 난에는 논문에 기재하기 어려운 근본 자료, 도표, 장문의 인용문, 법률의 조문, 독자가 쉽게 얻기 어려운 문헌의 내용, 사진 자료 등을 묶어서 싣는다. 이 부록 난은 내용을 성질에 따라서 적절히 분류하여 본문의 내용과 이질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목록을 명시해야 한다.

(6) 색인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에는 색인이 필요하지 않다. 출판을 고려한 논문일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만들어 붙이는 것이 좋다. 과거의 출판물에서는 색인을 경시한 감이 있으나 요즘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7) 초록

초록은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잘 간추려 요약한 글로서 해당 논문에 사용한 언어가 국어인 경우는 다른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논문에 따라서는 서두부(본문 부분 바로 앞)에는 국문 초록을 두고, 참고 자료부에 외국어 초록을 두기도 한다.

5)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양식

(1) 인용문의 출처 표시 양식

논문의 서술 과정에서 본문에 인용한 자료에는 그 때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비록 적절한 관례에 따른 인용이라 할지라도 인용문이 본래 속해 있던 문헌이나 자료명, 면 수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밝혀야 한다. 인용한 문헌의 출처 표시 방법에는 크게 필자 연도 체계(author-date system)와 번호 체계(number system)의 두 가지가 있다.

필자 연도 체계는 보통 1993년에 간행한 시카고 양식 매뉴얼(*The Chicago Manual of Style*, U.C.P.)의 체계를 따르는데, 논문의 뒤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참고 문헌 목록을 바탕으로 참조, 인용한 문헌이나 기타 자료의 출처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체계를 쓰기 위해서는 참고 문헌 목록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필자 연도 체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필자명과 간행 연도이다. 이 때의 필자명은 저자는 물론, 편자, 편집자, 번역자 등을 두루 가리키는데, 한국의 필자명은 ‘주시경’처럼 성과 이름을 함께 표시하고, 서양인의 이름은 참고 문헌 목록에는 “Eliot, T. S.”와 같이 표시되더라도 성인 “Eliot”만을 적는다. 시카고 양식 매뉴얼 체계에서는 종전의 필자 연도 체계와는 달리 필자명과 간행 연도 사이에는 쉼표를 찍지 않으며, 간행 연도 뒤에 쉼표를 찍고 페이지수를 표시한다.

<필자 연도 체계(U.C.P.)>

- “.....(인용문을 나타냄 : 이하 같음).....(김민수 1974).”
- “.....(Eliot 1920).”
- “.....(주시경 1910, 22-33).”
- “.....(남기심, 고영근 1983).”
- “.....(Smith, Carter, and Jacobson 1981).”

한편 번호 체계는 인용한 내용의 끝에 번호를 붙이고 주석의 형식으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때에는 저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번역자명, 발행지, 출판사, 발행 연도, 페이지’의 순으로, 논문의 경우는 ‘집필자명, 논문 제목, 게재지명, 권 호수, 발행처, 발행일,

페이지' 순으로 나열한다.

한 논문에서 동일한 저서나 논문을 반복하여 인용할 경우에는 두번째 인용부터서는 기입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첫 번째 인용 시에 기입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上同’, ‘前掲書’, ‘같은 책’, ‘앞에 든 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간략히 나타낸다. 이 경우 구미의 논문에서는 라틴어 약호인 ‘Ibid. , op. cit., Loc. cit. 등’을 사용한다.

참고로 Ibid.는 바로 앞의 주에서 다른 저술을 가리키는데 페이지가 다르면 Ibid. p. 127 처럼 이를 명기하며,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다. op. cit.는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어서 Ibid.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쓴다. 반드시 N. Chomsky, op. cit., p. 47처럼 저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표시한다. Loc. cit.는 같은 책의 같은 글을 표시할 때 쓰므로, 페이지를 명기하지 않는다.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으면, N. Chomsky, Loc. cit.처럼 저자명과 함께 쓴다.

<번호 체계>

“.....”1)

“.....”2)

주석 란에, 1)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 현대문학사, 1961), p. 120.

2) 박준규, “고산의 한시 연구”, 「고산연구」, 제3호(고산연구회, 1989), p.25.

(3) 주석 양식

주석은 기능에 따라 크게 내용 주석과 문헌 주석으로 나뉜다. 이 중 내용 주석은 본문 중의 특정 사항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사실, 추가하여야 할 방증,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사실 따위를 덧붙이는 데에 쓰인다. 반면 문헌 주석은 인용한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주석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는 脚註, 尾註 혹은 後註, 間註 따위로 나뉜다. 각주는 본문의 아래쪽 여백에 줄을 긋고 작은 글씨로 나타내는 주석이며 대표적인 방식이다. 미주는 본문의 한 장이나 맨 뒤쪽에 주석을 모아 두는 방식이고, 간주는 본문 중에 자리를 만들어 끼워 넣는 방식이다. 이 세 방식은 위치만 다를 뿐 작성 양식은 동일하다.

(4) 참고 문헌 목록 양식

참고 문헌은 국내외 여러 다른 언어로 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우선 언어별로 분류하고 각기 따로 나열한다. 가령 국어, 일어, 영어의 3 가지 언어로 된 참고 문헌이 있다면 국어 문헌을 일정한 순서로 나열한 다음, 일어, 영어 문헌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언어별로 문헌 자료 목록을 나열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필자명의 철자 순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인다. 이를테면 국어 문헌의 필자명은 가나다 순, 일어 문헌은 가나 문자 순, 영어 문헌은 알파벳 순에 따라 배열한다.

필자명은 국어 문헌의 경우 책의 표제지에 나타나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곧 “성 + 이름”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성만 표시한다든지 이름만 표시해도 안되며, 박사, 선생, 교수 따위의 칭호도 필요 없다. 서양식 이름일 때는 원전의 표제지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표시한다. 원전의 표제지에는 대개 Michael David처럼 이름이 성 앞에 놓인다. 그러나 참고 문헌 목록에는 David, Michael과 같이 성을 먼저 쓰고 쉼표(.)한 다음에 이름을 적는다. Dana Carleton Munro와 같이 중간 이름이 있는 경우도 Munro, Dana Carleton처럼 적는다.

<참고 문헌 목록 예>

국어정보학회(1996), 세계로 한글로, 시나리오 타자본.

김상태(1982), <문체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새문사.

_____ (1985), <참말과 거짓말 사이>, 서울 : 대방출판사.

문화방송(1996), MBC 멀티드라마, 서울 :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씨디 롬.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 학연사.

홍순탁(1974), 이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梅田博之(1982), 朝鮮語の指示語. <講座日本語學> 12, 東京 : 明治書院

Cruse, D. A.(1982), On Lexical Ambiguity, *Nottingham Linguistics Circular* 11.2, 65-80.

Palmer, F. R.(1981), *Semantics(2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양식

자연과학 분야 논문이란 이학, 공학, 의학 및 농수산학 분야 등의 자연 과학 연구에서 주로 쓰는 논문을 가리킨다.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서술 방식과 양식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길이에 있어 인문·사회과학 논문의 10분의 1정도에 그칠 정도로 짧다. 노벨상을 받은 왓슨의 DNA 이중나선구조에 관한 논문이 약 9백 단어에 불과했다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분량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길이가 짧은 것은 한 논문에서 다루는 분야와 주제가 지극히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학 분야 논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간단 명료한 기술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술의 객관성이나 명시성을 중요시하여 장황한 설명보다는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나 기호, 수식 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의 대상이 갖는 특성 상 불가피한 일이다. 실험과 관찰은 재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논문의 타당성이나 독창성이 용이하게 검증되기도 한다. 따라서 명확하게 독창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논문은 자연계 논문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1) 인용문의 출처 표시 양식

자연과학 분야 논문에서 인용한 문헌에 대한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번호 체계를 사용한다. 곧 본문 안의 인용한 부분에 [1], [2] 등과 같이 인용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본문에 일련 번호로 표시된 인용 문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논문 끝에 첨부하는 참고 문헌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인용 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는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본문 인용 방식에서 일련 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용 문헌 목록의 구성 요소는 번호, 필자명, 학술지나 단행본의 이름, 권(호)수, 페이지 및 연도 표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참고 문헌 목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련 번호가 있고, 연도 표시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점에서 필자 연도 체계와는 다르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인용 문헌 목록에서는 흔히 학술지명을 간단히 줄여서 표기한다. 예를 들어 *Physical Review*는 Phys. Rev.라 쓰며, *Chemical Review*는 Chem. Rev.와 같이 쓰는 것이 관용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호를 잘 익혀 사용해야 한다. 권(호)의 번호는 대체로 고딕체로 적고, 연도는 괄호 안에 넣는다. 책 이름이 나타난 경우에는 논문 제목은 쓰지 않는다. 영문 문헌의 경우 단행본이나 책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분야에 따라서는 위의 방식과는 달리 인문·사회 계열에서처럼 필자 연대 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지질학, 자원 환경 등)도 있으며, 저자명이나 연도 표시 방법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래에 일반적인 자연계 논문 인용 표시 양식을 보이기로 한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 인용 표시 양식>

.....[1].....[2].....[3].....
.....[4]

[1] 김시원, 응용물리, 33, 365 (1977).

[2] K D. Hong, J. Korean Phys. Soc. 10, 150 (1970).

[3] E. Piers, J. Chem 52, 3563 (1974).

[4] V. R. Voller and S. Sundarraj, *Modeling of Microsegregation*, Mat. Sci. Technol. 9, 474 (1993).

(2) 참고 문헌 목록 양식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은 앞에서 언급한 인용 문헌 목록이 된다. 따라서 인문·사회계 논문과 달리 참고 문헌 난에 문헌의 인용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가 표시되며, 인용 면 수도 나타나게 된다.

수학, 물리학 등의 논문 작성에서는 기호, 수식 등이나 특수한 문자들의 처리를 위해 라텍스, 암스텍스, 레브텍스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논문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집필자가 이 양식에 맞추어 제목, 항목, 주석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목록 또한 이들 프로그램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게 된다.

아래에 자연과학의 분야별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을 예시한다.

<이학계>

1) See, for example,

a) D. A. Leng, "Raman Spectroscopy," Mc Graw-Hill, New York, 1977.

b) S. K. Freeman, "Applications of Raman Spectroscopy,"
Wiley-Interscience, New York, 1974.

c) H. A. Szymanski, edit., "Raman spectroscopy. Theory and practice," Plenum Press,
New York, 1967.

d) J. G. Grasselli, M. K. Snavely, and B. J. Bulkin, *Phys. Reports*, 65(4), 231(1980).

2) N. Furuya, A. Matsuaki, S. Higuchi, and S. Tanaka, *Water Res.*, 13, 371(1979).

3) K. M. Cunningham, M. C. Goldberg, and F. R. Weiner, *Anal. Chem.*, 49(1) 70(1979).

4) See for recent reviews,

a) M. D. Morris and D. J. Wallan, *Anal. Chem.*, 51(2), 182 A (1979).

b) D. J. Gardiner, *Anal. Chem.*, 52, 96 R(1980).

<공학계>

1) Bitsianes. G. and Joseph, T. L. : *Journal of Metals, Transactions, Section 7*(1955) 639.

2) 안영필 :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3집(1958) 277.

3) Meyer. H. H. : *Mitt K-W-I Eisenforsch.* 10(1928) 107.

4) Goetzl, C. G., *Treatise on powder Metallurgy*. Vol. 1(1949) 503.

<의학계>

1) Lauro de Souza Linrrna : *Immerio-Biologic Anomalies in Leprosy Internat. J. Leprosy.* 16 : 9, 1948.

2) Schujman, S. : The Value in Lepromin Reaction in the Clinical Forms, *Internat. J. Leprosy.* 21:1, 1953.

3) 이윤재 : "나병의 병리 조직학적 고찰", '대한피회지' 1 : 39, 1960.

<약학계>

- 1) 윤두석, '국방부 과학기술연구소보고' 4, 73(1959).
- 2) 이정옥, 김형수, 최응칠, 김병각, '한국생약학회지' 17, 32(1986)
- 3) Kim, J. H., Kim, H. W., Kim, J. W., Ghoi, E. C. and Kim, B. K., *J. Kor. Cander Res. Assoc.* 17, 205(1985).

● 학위논문 작성 요령

* 규격은 A4(210×297mm)로 하며, 지질 80g 이상 백색모조지로 인쇄한다.

* 작성순서

- 1) 표지 : 양식 1 (표지상단에 심사본은 학위청구논문으로 ,최종논문은 학위논문으로 기재해야 함)
- 2) 내표지 I(제출문) : 양식 1
- 3) 내표지 II(인정서) : 양식 2
- 4) 목차
- 5) 국문초록 : 양식 4
- 6) 본문
- 7) 참고문헌(References)
- 8) 영문초록(Abstract) : 양식 5
- 9) 부록

* 상기 순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순서를 바꾸어 제작한다.

본문 인쇄 - 아래한글(hwp)기준

가. 글자크기 : 1단으로 하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1pt로 인쇄한다 (단, 각주는 9pt로 한다.).

나. 글자체 : 논문제목은 HY견명조, 본문은 바탕

다. 줄간격 : 200%

라. 용지 여백

위 쪽 : 35 머리말 : 0

왼 쪽 : 35 오른쪽 : 30

아래쪽 : 25 꼬리말 : 15

※ 단 표지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같게 한다.

마. 제목 번호를 기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드시 기입한다.

국 문 : 1. 가. 1) 가) (1) (가)

외국어 : 1. A. 1) a) (1) (a)

바. 사진은 원본의 색이 유지되도록 인쇄하여야 한다.

사. 인쇄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위원의 최종논문 인준 날인을 받아 제본한다.

양식 1) 학위논문 표지 및 내표지(I)

↓ 4.5cm	
○○학 석사(박사)학위논문	14pt
↓ 1.5cm	
논문제목(HY전명조)	26pt
↓ 3cm	
전남대학교대학원	16pt
↓ 0.5cm	
○ ○ 학과	16pt
↓ 1.5cm	
성 명	16pt
2012 年 8月	16pt
↓ 4cm	

- ※ 표지 작성시 심사용 논문에는 “학위청구논문”으로, 최종 학위논문에는 “학위논문”으로 기재해야 함
- ※ 위의 규격에 맞춰서 책자형 논문 표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단, 위아래의 여백은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목의 길이에 따라 글자 크기는 조절 가능함).

양식 2) 내표지(II)

↓ 4cm

논문제목(HY전명조)

26pt

↓ 2cm

이 논문을 ○○학 석(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6pt

전남대학교대학원 16pt

○ ○ 학과 16pt

성 명 16pt

지도교수 ○○○ 16pt

홍길동의 ○○학 석(박)사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16pt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220
├ % 심사위원
└ 심사위원

2012 년 8월 16pt

↓4Cm

양식 3) 배면(背面)

↓ 3cm

제
목

성
명

↓ 1.5cm

2
0
1
2
년
8
월

↓ 3cm

※ 책 두께에 따라 Point 조절.

양식 4) 국문초록

↓ 3.5cm

장내세균의 생리학적 검사 방법에 관하여 16pt

↓ 1.5cm

성 명 16pt

↓ 1cm

전남대학교대학원 의학과 11pt
지도교수 ○○○

↓ 1.5cm

(초 록)

장내세균의 생물학적 측정법이..... 11pt

양식 5) 영문초록

↓ 3.5cm

A Study on the..... 16pt

↓ 1.5cm

Name 16pt

↓ 1cm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1pt
(Supervised by Professor ○○○)

↓ 1.5cm

(Abstract)

Many methods..... 11pt

※ 영문학과명은 우리 대학원 표준 영문학과명으로 기재해야 한다.